

## 육신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2)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 / 214-534-7141)

성경에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다가 죽음을 맞본 사례들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정복하자고 외친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미리 알아보자고 건의한다. 그러자 모세가 그 말을 선히 여겨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였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을 듣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 광야에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같은 결과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사전에 정탐꾼을 파견하여 답사하자는 육신의 좋은 생각 때문이었다. 얼마나 그럴듯한 좋은 생각인가? 그래서 모세도 그 말을 선히 여겨 승낙한 것이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기적으로 이곳까지 왔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니 하나님만 믿고 들어가기만 하면 취할 수 있는 땅이었다. 나중에 어떻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술과 무기가 뛰어나서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폭삭 무너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좋은 생각은 죽음을 가져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좋은 생각을 따르면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 별을 보고 따라온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로였다. 끝까지 별을 따라갔으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는 다름 아닌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인간적인 좋은 생각으로 헤롯 왕궁으로 들어갔다 결국 나중에 2살 이하의 사내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이다. 이처럼 육신의 좋은 생각이 무고한 생명들의 죽음을 가져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육신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생각인지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다수가 원해도 그것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죽음을 맞보기 전에 실행해서도 안 되고, 다수가 원치 안 해도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라면 따라가는 것이 모두를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조건 다수결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죽음을 초래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부합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생각들과 행동들이어야 한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롬 8:7) 죽은 시체를 아무리 아름답게 화장해도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육신의 좋은 생각들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죽음만을 가져올 뿐인 것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영의 말씀을 깨달거나 지키며 행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을 뿐더러,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기에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을 수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영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 죽음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예수님의 생명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사망을 가져옴을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의 좋은 생각이나 느낌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사는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는 하루와 남은 인생이 되도록 하자.